

'광주교육청 vs 학비노' 급식 조리원 감원 대립

학교 급식실 조리원 감원 문제를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가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학비노는 조리원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면 감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비노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은 단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포함 1235명이다. 이 중 37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퇴직 조리원 수만큼이 아닌 25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내년도 정원이 12명 줄어드는 셈이다.

매년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교육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1400명이 넘는 학생(급식인원 기준)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학비노 측은 조리원 현원 유

학생수 감소 내년 조리원 12명 감원 방침 노조 "업무강도 고려해야" 강력 반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학교 급식실 정원 감축에 반대하며 광주시교육청 정문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평소에도 업무가 과중인데 코로나 19 상황까지 겹치면서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황에 따른 업무량 및 근무시간 증가, 휴게 시간 부족 등 코로나19가 업무량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조리원 수까지 줄이면 급식실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

은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교원 정원도 매년 수십명 씩 감원하는 실정이다. 2021학년도 학교 상황 전반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타 지역 대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비노 관계자는 "조리원의 업무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중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 업무가 급증했다. 전연등교가 이뤄지면 급식실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원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업무강도는 사고를 부르기 마련이다. 감원 방침을 재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조선대 직원들,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2억 전달 조선대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억 여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대 직원들은 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코로나19 극복 지원 학생장학금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조선대 금액은 2억 여원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감면 등록금으로 사용된다. /김도기 기자

내달 13일부터 '노 마스크' 벌금낸다

계도기간 10월 12일 마무리 '코·입 덮어 밀착 착용'

광주시가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거듭 강조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26일 밝혔다.

모든 광주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위반한 시민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

금(대중교통·다중시설)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계도기간 중에도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를 청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성능이 검증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주 기자

전남복지재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블루SOS' 개발

공공·민간 누구나 손쉽게 지원 대상자 등록·지원

전남복지재단은 기부자와 지원 대상자를 직접 연결하고 기부금 사용 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나눔플랫폼 '블루SOS'를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블루SOS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규모가 급격히 늘었지만,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접하기 어렵고 공공지원과 민간지원 후원 연계가 쉽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나눔공간이다.

재단은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이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견부터 지원까지 과정이 각각 분리돼 있었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 사각지대 발견 후 SOS 등록, 공공복지지원, 사례별 모금, 후기확인, 지역별 현황정보 제공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복지시설 종사자나 도민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온라인에 등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가구를 방문하거나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지원, 민간재원이 필요한 경우 모금을 추가로 진행해 지원한다.

재단은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모금창구를 개설했다. 기부 희망자는 온라인 송금을 하거나 CMS(Cash Management Service) 등록도 가능하다.

등록된 위기상황이 해결되면 블루SOS에서 후기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내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고 시·군별, 사례별 모금에 참여하고 처리결과까지 알 수 있다.

재단은 40개 사회복지시설과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온라인 나눔 플랫폼 시범운영을 마친 뒤 개선점을 도출해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하고 내년에도 공식버전을 선보인다.

/최수남 기자

전남도교육청 KBS순천방송국과 업무협약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5일 KBS순천방송국에서 지역사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BS순천은 조만간 「랜선 역사기행 여·순 그리고 4·3」이라는 주제로 UCC 역사기행 교육 자료를 만든다. 여·순 사건의 사적지를 기행하는 형식으로 각각 5분 분량으로 25편 UCC 클립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순 사건이 발발한 날을 기념하여 10월 19일부터 일주일간을 '여·순사건 교육주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복성고 학생들이 제작한 '다시 보는 여·순사건' UCC 등, 지난 9월 19일 전남청소년역사탐구대회에서 지역시를 다룬 14편의 입상작들도 소개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주민등록 행정서비스 중단... "미리 준비하세요"

전남도는 오는 29일 오후 8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 인터넷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사이트인 '정부24'의 주민등록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행정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

고 등 주민등록 관련 27종 업무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업무를 미리 처리하거나 서류가 필요한 도민은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최수남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